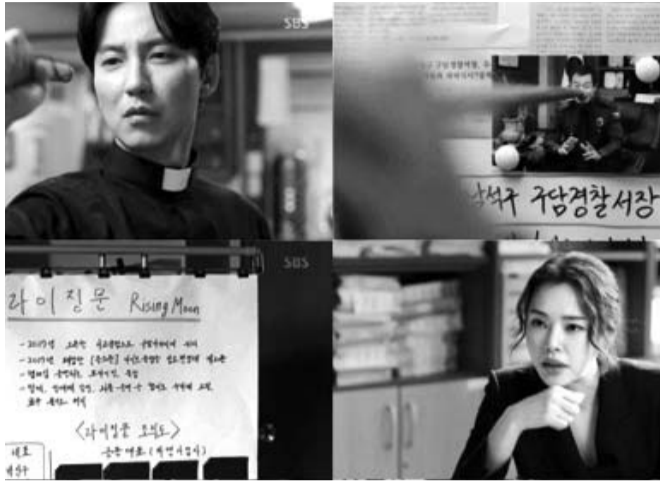


# 어제 나온 뉴스 오늘 드라마서 풍자

## 버닝썬·재벌2세 갑질 ... 현실 쾌속 반영 시청자들 '대리만족'



SBS TV 금토극 '열혈사제'



KBS 2TV 수목극 '닥터 프리즈너'

최근 안방극장에서는 버닝썬 게이트부터 재벌2세들의 '갑질'까지 한참 뜨거운 이슈들을 바꾸고 한껏 풍자한 에피소드들을 만난다.

가장 화제가 된 건 시청률이 20%에 근접하며 인기가 고공행진 중인 SBS TV 금토극 '열혈사제'다.

지난 23일 방송분에서는 검사 박경선(이하나 분)이 경찰서장과 클럽 '라이징문' 간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경선은 라이징문 실소유주가 극 중 배경이 되는 지역인 구담구의 카르텔이라는 것과, 클럽 안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이 돌고 연예인, 재벌 2세들과 연루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라이징문이라는 이름부터 최근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주목된 클럽 버닝썬을 떠올리게 하며, 마약 등 스캔들과 지배구조 등도 이번 사건과 똑 닮았다.

본의 아니게 '생방송(저녁 바쁘게 찍는) 드라마'라는 걸 입증한 꼴도 됐지만, 과감한 현실 풍자와 더욱 리얼한 에피소드에 목마른 시청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같은 방송사 수목극 '빅이슈' 역시 시작

부터 연예계의 각종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극 중 선데이통신 편집장 지수현(한예슬)은 유명 아이돌 스타가 기자 VIP 객실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사화하기 위해 기차에 오른다. 실제로 VIP룸에서는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판이 한창이고, 사진이 찍혔다는 걸 안 스타는 반성은커녕 사진을 없애기 위해 난리를 친다.

'빅이슈'에서는 이밖에도 한 클리닉 원장이 여배우에게 프로포즈를 투여하고 성추행하는 모습, 특권층이 숨기고 싶어하는 환부를 기록한 태블릿의 존재, 대기업 회장과 신인 여배우의 스폰서 스캔들, 톱배우의 병역 비리 등 현실에서 본 이야기들을 엮어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뉴스나 기사로 접했던 사건들이 떠올랐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과격적이고 충격적인 연예계의 검은 뒷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2TV 수목극 '닥터 프리즈너'에서는 망나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재벌2세가 등장한다. 태강그룹 이덕성 회장과 딸

런트 출신 모이라의 아들 이재환(박은석)으로, 분노 조절 장애인 듯 보이는 모습이지만 재벌 일가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3년형을 받고서도 누워치기는커녕 어떻게든 법망을 뚫고 나가려 안간힘을 쓴다. 그의 오만방자함과 '무법정신'은 교도소 내에서는 물론 도로 위 무고한 시민, 병원 내 생사를 오가는 환자 앞에서도 멈출 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앞에 오랜만에 나타난 의사 나이제(남궁민)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당할 것 같지만 않은 기세다. 그의 목숨줄을 쥐고 흐드는 나이제가 어떤 통쾌한 복수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방송가에서는 최근 드라마들이 이슈를 반영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데 주목한다.

한 관계자는 26일 "빨 빠른 사회이슈 풍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라고 한탄하는 현대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몰입감을 향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의 진실 규명이나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수록 '사이다'처럼 시원한 드라마 속 해결책이 시청자들에게 외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독립운동가 후손들 한국에 초대합니다"

## MBC TV '집으로' 다음달 1일 첫 방송

머나머 타국에서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눈을 감은 독립유공자들이 있었다. 이름마저 바꾼 채 살아야 했던 이들의 후손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다.

MBC TV '백 년 만의 귀향, 집으로'(이하 '집으로')는 해외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만나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들을 한국 땅으로 초대하는 예능 다큐멘터리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엔 홍재하, 김산, 강명화, 임성실 등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출연한다.

연예인 출연자로는 배우 손현주와 허일후 MBC 아나운서가 1~4부 고정 출연하며 역사 강사 최태성,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배우 홍수현·이동휘·고창석·한보름·한수연·윤주빈, 가수 풀킴, 피겨 스케이팅 선수 최다빈, 작가 정상규 등이 함께했다.

사절단 단장을 맡은 손현주는 25일 오사카에서 열린 MBC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제가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아닌데 '집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프로그



램이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이가 많아서 단장이 됐다"며 웃던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무겁게 돌아왔다. 찾아야 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너무 많아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즌제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후속 시즌이 제작된다면 출연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4부 중구 편에 출연하는 배우 윤주빈은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루신 공원을 찾았다. 윤봉길 의사의 증손인 그는 "저도 잘 컸고, 저희 세대들도 해방된 대한민국 안에서 잘 살고 있고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주 의병대장 김순오 선생의 외증손녀인 배우 한수연 또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육사의 손자지를 다녀온 경험에 대해 "협정에 가보니 모든 게 연결 정도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서러웠다.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역사 강사 최태성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성(姓)을 쓰고 있다. 성을 유지하면 타치게 될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오후 8시 55분 첫 방송. /연합뉴스

## SBS러브FM '최백호의 낭만시대' 11주년 특집

### 31일 밤 김연자 등 출연

SBS러브FM(101.1MHz)은 '최백호의 낭만시대' 11주년 특집 공개방송 '낭만 콘서트(사건)'을 오는 31일 밤 10시 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콘서트에는 가수 주현미, 진성, 이동원, 조항주, 김연자가 출

연해 기념일을 축하하고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공개방송에는 운전기사들이 초청됐다. 연출하는 이정은 PD는 "밤에 방송돼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이 특히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1		00 닥터 프리즈너(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기분 좋은 날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4	00 시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MBC PICK X 마리텔 V2 마리텔 V1 55 경성판타지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교황견문록 남도에 살아라(재)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만의 독림 영웅(권기욱)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슬터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벡터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07: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8:00 당당함 유치원1~2	14: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09:00 엄마 까투리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몰랑	16:15 출동! 슈퍼원스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30 랄랄라 뿌우(재)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당함 유치원1~2(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꽃게탕과 견세우볶음>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19:15 꼬마하어로 슈퍼잭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크 - 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미얀마 소용돌이 3부 오지의 불 인도지 호수>
	21:30 한국기행 <여행책에 없는 제주 3부 그 섬에 청보리 일렁이면>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24:50 세계의 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음 2월 21일 쫓카)	
	36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행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48년생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운 꿈을 볼 수 있다. 60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취보자. 72년생 부딪치면 손해이니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다. 84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9, 50		42년생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54년생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유익하리라. 66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마땅하다. 78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안속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90년생 대인 접촉은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5, 30
	37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49년생 상황에 따르는 것이 낫겠다. 61년생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73년생 보편성의 예외가 보인다. 85년생 기다려 왔던 것은 들어오지만 쓸 곳은 더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36, 61		43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55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다면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 67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경향이 많은 이를 찾아라. 79년생 아무 생각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91년생 결실을 취하는 바가 풍성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49
	38년생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50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62년생 제안사가 안정된 계도에 진입하는 동세로다. 74년생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니라. 86년생 시세가 흥흥하니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도 있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61, 42		44년생 배우에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자. 56년생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중차대한 것을 놓치게 됨을 알라. 68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80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92년생 인과응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7, 41
	39년생 광택이 나고 풍채가 갖춰지니 길상이다. 51년생 추중라도 탄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63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의외의 행운이 따르게 된다. 87년생 명확해야만 뒤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1, 57		45년생 지금은 변화해야 할 때이니 분명하게 타바꿈하자. 5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모두 이룰 수 있다. 69년생 끈질기게 밀어붙이면 성취하리라. 81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 93년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8, 15
	40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52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64년생 합리적인 실행이 길성을 부르리라. 76년생 정중동의 형태가 경제적인 알아야 한다. 88년생 주변의 충동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9, 23		34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46년생 중일 없애어서 애를 쓰게 된다. 58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 70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1, 28
	41년생 원한다면 취할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밤심 한다 면 상재의 시험에 빠져들 수 있느니라. 65년생 인간은 겪어 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아느니라. 77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다. 89년생 형식과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8, 71		35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47년생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탄없이 행해 보라. 59년생 저면 따지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71년생 정성과 솜씨에 따라 결과 차이가 판이하리라. 83년생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2, 04